



자동차/로봇(Positive)

유니트리(Unitree) 상장 관련 코멘트

▶ Analyst 김성래 sr.kim@hanwha.com 3772-7751

유니트리(Unitree)의 성공적인 상장: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 가능성 증명

-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밸류: 상장 첫날(8/19) 공모가(150.8위안, 시가총액 약 12.6조 원) 대비 629% 높은 1,100위안에 거래되면서 장중 최고치인 약 92조 원 기록.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460.3% 상승한 845위안(시총 기준 약 70.7조 원) 안착
 - 종전 IPO 신청 당시 시장이 예측했던 유니트리의 기대 시총은 400억~500억 위안(약 8.4조원~10조원) 수준
 - '25년 매출액(17억 위안) 기준 시장 기대 PSR은 23~29배 수준이었으나, 상장 첫날 종가 기준 PSR은 201.2배
- 휴머노이드 로봇 업계 내 가장 밸류 높은 업체 등극: 기존 비상장 시장에서 가장 높은 밸류를 인정받았던 Figure AI의 390억 달러(약 55조 원 수준)를 단숨에 추월. 실물 양산 출하가 가능한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사로서 가장 높은 글로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증명. 또한,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충분히 밸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
 - Tesla의 옵티머스(Optimus) 밸류가 SOTP 기준 전체 시총의 약 20%를 차지하여 약 2,100억 달러(2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비상장 포함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시장 밸류 상에서는 유니트리 시총인 가장 높은 기록

유니트리 밸류에 대한 시장 기대 요인

- 다양한 제품군 및 시장 확장성: 4족 보행 로봇(Go/B 시리즈)부터 가성비 휴머노이드(G1, H1)까지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 시설 점검/순찰, 가정/돌봄 등 초기 서비스 시장 침투 기대감 반영
- 거대 내수 시장 기반의 단기 양산 가시성: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로봇 생태계 지원과 풍부한 내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단기 실적 및 출하량 지표가 빠르게 확보
 - 유니트리는 2025년 매출액 17억위안(+333% YoY)으로 고성장 시현했고, 1H26 매출액 전망은 11.5억위안(+48.5% YoY)으로 올해 반기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 규모의 67.6%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독보적인 이동성 제어 역량: 유니트리의 핵심 기술은 동적 밸런싱, 무게중심 이동 제어, 민첩한 이동성(Mobility)에 집중되어 있어 시각적 퍼포먼스와 대중적 바이럴 효과 극대화

필자가 생각하는 유니트리 밸류 업사이드의 한계: 높은 기반하중과 비정형 물체에 대한 조작 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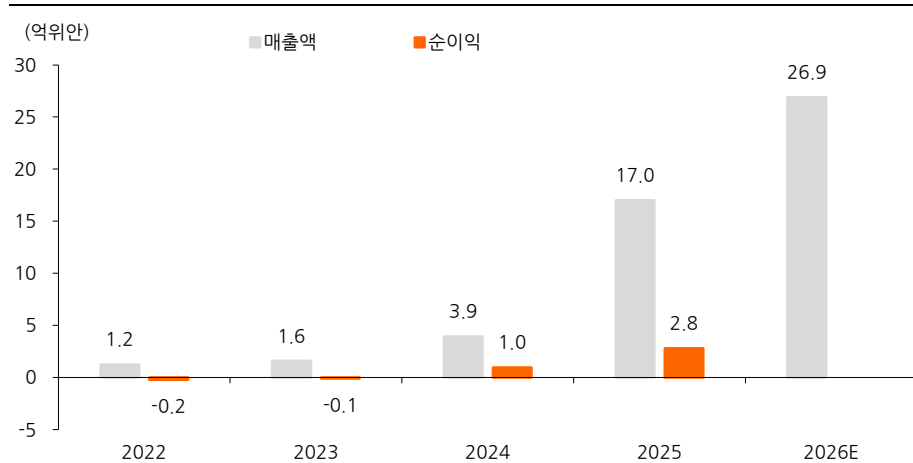
- 공장/물류영역 내 '고부하 작업 보조/대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잔존: 로봇 산업의 본원적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거대 시장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제조-물류 현장의 고부하 작업 보조 및 대체라고 판단하며, 그에 맞는 레퍼런스 제시 필요
 - 2m에 달하는 높은 제자리 점프 능력과 유연/긴밀한 이동 동작 성능도 중요하나, 15~20kg의 고중량 물체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하중(payload) 및 작업자가 핸들링하는 비품/공구 및 작업물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형상에 대한 안정적 파지 및 조작(manipulation) 성능 증명 필요
 - 유니트리의 경량 자가형 준직접구동(QDD) 액추에이터는 빠른 이동성에는 유리하나,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고중량 부품 핸들링과 연속 고부하 작업을 지탱하기에는 아직 토크밀도와 강성(Stiffness)이 부족

* 최근 여러 현장에 투입 중인 G1 기준 Arm 기반하중(payload)은 2~3Kg 수준

유니트리 상장에 따른 국내 휴머노이드 영향: 위협이 아니라 밸류 프리미엄의 신호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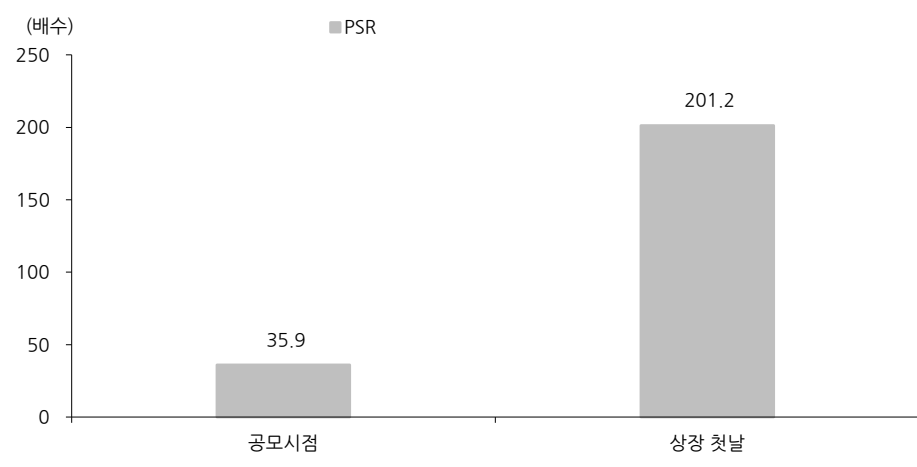
- 밸류 프리미엄에 결정적이었던 상용화 역량 확보에 집중: 유니트리와 같이 실제 양산/출하가 가능한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역량 확보 시 충분히 밸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
 -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 지난해 5,500대 출하했고 1H26에만 약 5,900대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약 12,000~15,000대 수준(+118~172% YoY)의 대규모 휴머노이드 양산/출하 역량이 가능한 점 부각
 -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나믹스와 로보티즈 등은 각각 미국과 우즈벡 등에 대규모 휴머노이드 및 액추에이터 양산을 준비 중이며, 이들 업체들의 실제 공장 가동 및 양산/출하 물량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유니트리와 같이 충분한 밸류 프리미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안정적 캡티브(Captive) 수요와 산업용 Target 기술 보유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가치를 부각:
 - 발차기, 제자리뛰기 등 이동성(Mobility)을 넘어 가혹한 제조 환경에 맞는 까다로운 요건(가반하중, 반복정밀도, 방수/방진, 안전 규격)을 복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고성능 Spec.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실효 성능 개발 중으로 향후 더 높은 밸류 프리미엄 확보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 특히, 보스턴다이나믹스처럼 캡티브(Captive) 중심의 공장/물류 자동화 수요를 보유한 업체들은 명확한 Target (HMGMA, 알라바마/조지아)과 이를 모사한 실증 테스트베드(RMAC)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 확보에 유리
- * 현대차그룹은 로봇 상용화를 위해 적용 현장인 HMGMA 공장 작업자들의 실제 동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상화 학습 및 실제 검증하는 PoC센터(RMAC)를 8월 가동 시작

[그림1] 유니트리(Unitree) 연도별 매출액과 순이익 추이/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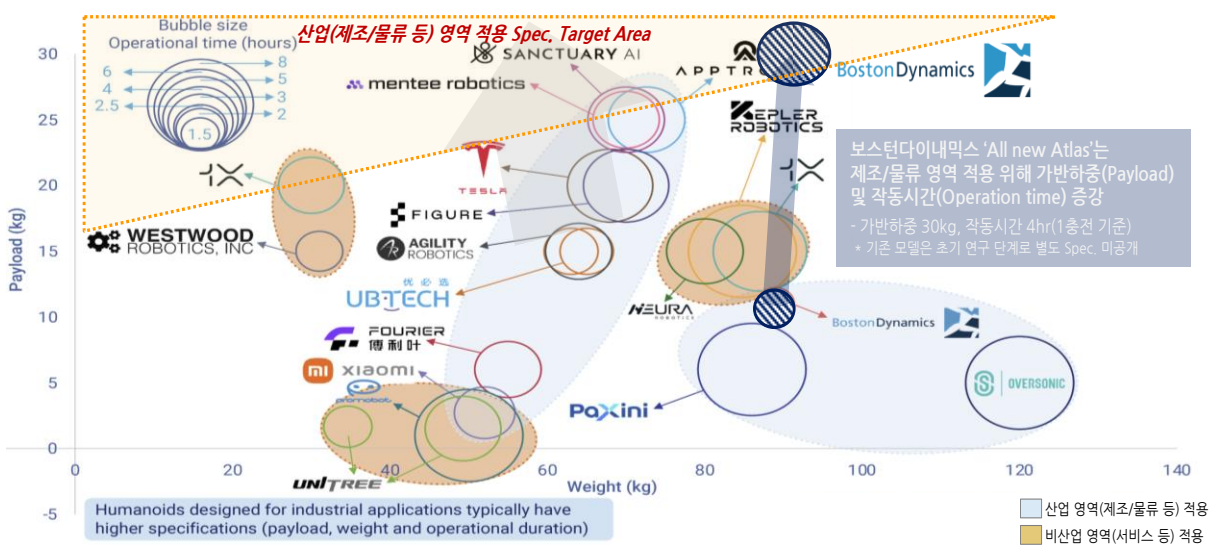
자료: 유니트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유니트리 PSR 변동(공모시점 vs. 상장 첫날 - 종가기준)



자료: 유니트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글로벌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의 Target 중량, 가반 하중 및 작동시간



자료: IDTechE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8월 2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3.8%	5.6%	0.6%	100.0%